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권복순*

〈차 례〉

- | | |
|-------------|---------------|
| 1. 문제 제기 | 4. 문답의 해설적 기능 |
| 2. 공간의 연속성 | 4.1 눈을 뜬 세계 |
| 3. 여정의 두 갈래 | 4.2 눈을 감은 세계 |
| 3.1 삼형제의 여정 | 5. 마무리 |
| 3.2 강림이의 여정 | |

〈요약문〉

이 글은 〈차사본풀이〉의 구조가 독립된 두 개의 삽화로 이어져 전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독특한 서사원리가 이야기의 전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대하는 연구 성과에 이르기 위해 먼저 삽화별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와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다.

〈차사본풀이〉에서 각 삽화별 주인공은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와 강림이다. 이 두 삽화의 주인공들의 공간은 두 층위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각 주인공들의 여정은 삶과 죽음의 공간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거나 삼형제의 여정이 단선적이라면 강림이의 여정은 복합적인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특성을 보인다.

각 주인공들이 길을 떠난 목적성을 고려할 때 삼형제의 여정은 실패담이고 강림이의 여정은 성공담이다. 삼형제는 이미 정해진 사주팔자를 바꿀 목적으로 길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강림이는 이승 차사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저승차사로서의 임무도 성공함에 따라 인간 차사직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인물의 목적성에 따른 성공여부는 각 삽화별 인물의 본질성과 서사적 기능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삼형제는 예사사람이며 강림이는 신성을 지닌 인물이다. 삼형제의 죽음은 강림이의 신성을 이끌어오기 위한 예비담의 성격을 띠고 강림이의 이야기는 본격담에 해당한다.

예비담에서 삼형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제기된 물음은 본격담을 통해 해소된다. 예비담과 본격담을 이어주는 매개인물은 과양생이 처이다. 본격담에서는 이승 사람이면서도 유일하게 저승에 간 강림이를 매개로 그 해답을 제시한다. 예비담의 물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삼형제의 죽음을 통해 제기된 물음은 ‘인간의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 운명관에 대한 답변은 그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초월자의 영역임을 뚜렷하게 밝힌다. 즉 생(生)은 부처가 담당하며 (死)의 주관자는 염라왕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생(生)과 사(死)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두 번째 물음은 과양생이 처의 소지에 의해 제기된다. 그 내용은 ‘인간의 사후에 관한 의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염라왕이 이승에 와서 그 의문을 풀어준다. 그 결과 과양생이 부부는 현생에서 자신에게 불어 닥친 비극의 의문을 풀게 되고, 그 악행의 결과로 벌레로 환생한다. 반면 삼형제는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러한 관념은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선 상에서 惡因惡果, 善人善果의 사상을 반영한다.

세 번째 물음은 강림이와 동박사를 통해 제기된다. 그 물음은 ‘인간 생명의 영원성’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림이가 삼천년이나 수명을 이

어온 동박삭을 잡아옴으로써 그 해답을 제시한다. 즉 인간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밖에 영·육 분리관도 발견된다. 삼형제나 강림이는 이승에 있을 때는 영·육이 일체였으나 저승으로 갈 때 영·육이 분리된다.

이상과 같이 〈차사본풀이〉의 독특한 서사원리를 통해 전하고자 한 바는 삼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예비담은 강림이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담을 이끌어 오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었으며 이 두 서사원리의 기능은 ‘물음’과 ‘해답’이라는 해설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

주제어 : 독특한 서사원리, 삽화별 주인공, 예비담, 본격담, 물음, 답변, 해설적 기능

1. 문제 제기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가 된 신의 내력을 밝힌 설명담이다. 그러므로 저승차사인 강림이가 주인공인데 이야기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저승차사인 강림이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며 전반부에는 강림이와 별개의 인물인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형식은 보편적인 서사의 틀을 벗어난다. 보편적으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독특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 장치 중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서사의 주인공이 강림이면서도 동시에 각 삽화별 주인공이 따로 있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를 저승신화로 전제하고 〈천지왕본풀이〉 〈바리공주〉 〈차사본풀이〉를 이계여행형으로, 〈장자풀이〉

〈황천혼시〉〈맹감본풀이〉〈짐가제굿〉을 치성차사형으로 구분한 논의에 대해¹⁾ 김형근, 김현선은 〈차사본풀이〉의 정의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연구대상의 부적절성에 관해 비판하였다. 이 비판은 신직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인물의 행적과 공간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할 때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차사본풀이〉류의 이야기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근은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에 비해 저승의 신이 되는 과정을 중시한 점을 들어 〈차사본풀이〉의 형성과정에 제주도굿의 특징들이 반영된 것²⁾으로 보았다. 또 우리나라 죽음기원신화인 〈차사본풀이〉와 중국, 아프리카의 죽음기원신화를 비교하여 조명한 바 있다.³⁾ 한편 악인형 여성신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전본풀이〉의 노일제테귀일의 딸과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처의 차이점을 밝혔다.⁴⁾

이를 보면 〈차사본풀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내·외의 유사한 작품과 연계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라 할 때 텍스트는 부분과 부분의 통합체⁵⁾이므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파악해야 작품은 유기체적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연구 성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성을 살핀 후 각 인물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성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독특한 서사적 원리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

1)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쪽.

2)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차사본풀이〉연구 -함흥〈짐가제굿〉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39-271쪽.

3)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6, 4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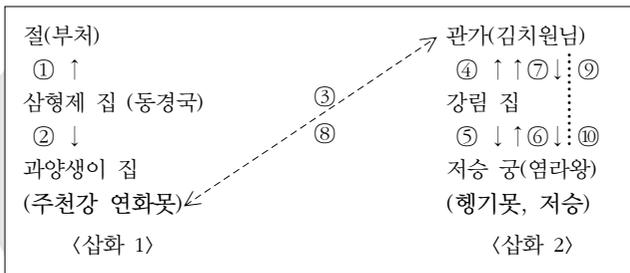
4)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濼上古典研究』 제29집, 2009, 328-362쪽.

5)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79, 134쪽.

고자 하는가에 주목하고 그 해설적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자료는 채록 원본이 잘 보존되어 있고 논리성과 내용이 풍부한 안사인본 『제주도 무가』를 대상⁶⁾으로 한다.

2. 공간의 연속성

〈차사본풀이〉의 공간은 각 삽화에 따라 두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삽화의 공간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삽화는 시간의 계기적 순서에 따라 각각 독립된 삽화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차사본풀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다. 이 두 삽화를 이어주는 매개공간인 ③과 ⑧은 과양생이 집과 김치원님의 관가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한다. 우선 각 삽화의 주인공은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와 강림이다. 이들의 행적은 각각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⁷⁾는 아들의 단명을 잊고자 하는 부모의 요청에 의해 집을 떠나오며 강림이는 김치원님이 임무를 맡기는 바람에 집을 떠나오게 된다. 전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

6)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7) 논의 편의상 삼형제라 칭함.

정이다. 목적성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정 또한 다르다.

〈삽화1〉의 주인공인 삼형제는 자신의 집인 동경국에서 나와 ①을 거쳐 ②로 간다. 이들의 여정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과 극을 거친다. ①의 여정이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길이라면 ②의 여정은 죽음의 여정이다. 결국 삼형제는 산 사람으로 생명을 잇기 위해 나왔지만 그 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되어 환생하게 된다. 그러나 〈삽화2〉의 주인공인 강림이는 자신의 삶이나 죽음의 문제와 무관하다. 그는 삼형제가 죽은 의문을 풀기 위해 이승 차사의 임무를 띠고 떠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삽화의 주인공들은 이승과 저승세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여정의 경로를 살펴보면 삼형제의 여정이 비교적 단순노선이라면 강림의 여정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강림이는 같은 공간을 중복적으로 오가지만 그 여정의 목적성은 다르다. 강림이는 ④와 ⑤를 거쳐 다시 ⑥과 ⑦로 되돌아왔다가 ⑧을 거쳐 ⑨⑩의 공간으로 정착하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저승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삼형제와 달리 강림이는 같은 공간을 세 번씩이나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 처음의 여정은 ④⑤⑥⑦을 거쳐 ⑧에서 종착한다. 그리고 강림이는 다른 목적성에 따라 또 같은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은 염라왕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 때 ⑨⑩의 여정을 거치는데 이 여정은 저승차사로서의 기능과 신직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다.

각 삽화의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형제와 강림이의 집을 중심으로 초월적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절과 주천강 연못 그리고 행기못과 염라왕의 궁으로 표면화된 이 공간은 삶과 죽음의 공간으로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띤다. 이 중에서 주천강연못과 행기못은 모두 저승과 관련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 특성은 다르다. 이 두 공간 모두 세속과 연계된 곳이지만 〈삽화1〉의 주천강연못은 산 사람이 죽어 재생하는 공간으로 〈문전본풀이〉의 주천강연못이나 〈이공본풀이〉〈세경본풀이〉의 서천꽃밭과 유사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기못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계로써 저승의 관문이라 할 수 있으

며 이 곳을 통과하면 저승이 있다. 전자의 공간들은 세속계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후자의 공간은 세속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그 경계는 헝기뭇이다. 이와 같이 〈차사본풀이〉에서의 저승공간은 주천강연못과 같은 이승과 연속선상에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이승과 뚜렷하게 분리된 공간인 저승이 있다. 〈차사본풀이〉의 공간을 후대 나타난 종교의 영향 탓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기존의 논의는⁸⁾ 삽화별 공간의 특성을 놓친 결과라 생각한다.

〈삽화1〉과 〈삽화2〉의 매개공간인 과양생이 집과 김치원님의 관가는 초월계와 대치되는 세속적 공간이다. 이 두 공간은 세속적 성격을 띠면서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인 공간으로 대별된다. 이 두 공간은 애초에 분리된 공간이었지만 삼형제의 죽음으로 인해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두 공간은 이러한 세속계의 사회질서를 반영해 주는 공간이다. 과양생이 집은 과양생이 부부가 살며 관가는 김치원님을 비롯해 육방관속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삽화1〉과 〈삽화2〉를 매개하는 동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매개공간이 김치원님의 관가이다. 결국 이 의문은 원님-강림-염라왕을 거쳐 ⑧의 공간으로 돌아와 해결하게 된다.

3. 여정의 두 갈래

3.1 삼형제의 여정

삼형제의 여정의 목적은 단명을 잇기 위함이다. 그런데 목적성을 고려해

8)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230쪽.

볼 때 삼형제의 여정은 실패담이다. 그런데 이 실패의 여정은 문학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본격담을 열어줄 예비담이자 문제 제기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삼형제의 죽음이 실마리가 됨으로써 강림이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형제의 여정은 강림이라는 인물을 이끌어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가 삼형제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한 시험절차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1차 시험은 절 안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절 밖에서 이루어진다. 절 안은 부처의 영역이지만 절 밖은 세속계다. 삼형제는 절 안의 시험을 거쳐서야 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삼형제는 절에서는 부처의 가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절 밖에서는 세속에 속한 인간일 뿐이다. 더구나 예사사람인 삼형제는 자신들의 앞일을 예견할 수가 없다. 초월자인 부처만이 삼형제의 앞일을 예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운명을 바꿀 방법까지 알 수 있다. 정작 인간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사의 문제를 알 수가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초월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문학에서 초월자의 등장은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소할 방편으로 존재한다. 이 신화에서도 예사사람인 삼형제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초월자인 부처나 염라왕 그 밖의 조력자인 조왕신, 일문전신 등이 등장하여 해결한다.

〈전략〉 대사님이 사주역을 건어보니 80이 정명이라, 모렛날 사오시(巳午時)면 죽어 명왕으로 돌아설 듯 합디다. 대사님이 소사중을 불러 말을 하되, “소사중아, 소사중아, 나는 모렛날 사오시면 인간을 하직할 테니, 내가 죽거든 나무를 천 바리 들여 화장시켜서 서관음 금법당에 왕생극락 시켜주고, 너는 동경국을 내려가면 버무왕 아들 칠형제가 있는데, 위로 사형제는 사주팔자가 좋고 아래로 삼형제는 사주팔자가 나빠 열다섯 15세로 정명이 끝이니, 이 아이 삼형제를 우리 법당에 데려다 법당공양을 시켜 열다섯 15세의 명과 복을 이어주고, 너는 대사가 되고 삼형제는 소사를 삼아 우리 법당을 공양하라.”

위의 내용은 절에 거주하는 대사중이 운명을 하면서 소사중에게 내린 유언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사중은 자신의 운명 뿐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또한 정해진 수명을 바꿀 방법까지 아는 존재다. 그 방법은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면 부처의 신력으로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의 예언에 따라 삼형제는 부모 형제를 이별하고 길을 떠난다.

부모 형제간을 이별하고 삼형제가 소사중 뒤를 따라 동관음 상주사로 꾸벅꾸벅 올라간다.

가는 날부터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 날과 달이 지나 한 해가 가까워 오니, 3년째 되는 날에는 법당 밖에 나와 단풍놀이를 하는데, 난데없이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고 형제간 생각이 간절하여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큰 형님이 말을 하되,

“불쌍한 동생들아, 이렇게 앉아 울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으리, 법당에 들어가 대사님께 말씀드려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법당에 들어가 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불쌍한 아기들아, 그럼 가기는 하라마는 광양땅을 조심하여 지나가라, 조심하지 않고 가다가는 우리 법당에 와 3년 동안 법당 공양한 것이 무공허사가 된다.”

삼형제가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러 간 것은 인간이 가진 세속성과 거리가 먼 초월적 세계로 떠난 길이다.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고 신심을 바치는 행위는 정신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관념적 존재인 부처와 달리 그 신격에게 소원을 빌러 간 영·육의 인격체인 인간은 정신적인 활동만으로 살 수가 없다. 정신적인 활동 이외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다. 이러한 숙명을 지닌 삼형제이기에 세속적 인간의 본성이 공양을 드린 지 삼 년째 되는 날 고개를 든다.

그 시련은 우연히 찾아오는데 3년째 되는 날 난데없이 부모 형제가 생각난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간파한 소사중은 삼형제가 속세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광양땅을 조심하라는 금기의 말을 잊지 않는다. 그 길을 조심하지

않고 지나가면 법당에서 불공을 드린 3년의 세월이 무공허사가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약속한 3년의 기간 중 하루를 채우지 못한 것은 삼형제의 고난을 예고하는 복선장치로 작용한다. 삼형제가 불공을 드리는 행위가 정신적인 수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절 밖에서 치르는 2차 시험은 인간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삼형제가 길을 떠나는 순간, 소사중의 금기 당부가 있었지만 그 금기는 길을 떠난 즉시 위반된다. 금기의 위반은 삼형제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해당한다.

동경국을 내려가다가 광양땅을 들어서니, 난데없이 시장끼가 한없이 나서 앞으로 한 발자국 가면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 도저히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삼형제가 길가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작은 아우가 말을 하되,

“설운 형님들아, 우리 등에 진 물건을 아무에게 가 주어도 식은 밥에 물 말아 놓은 것이라도 줄 듯 합니다. 저 집이 천하와가 부자집 같으니 물 말은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절에서 삼형제는 부처께 불공을 드림으로써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절 밖으로 나온 순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다. 먹지 않고서는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셈이다. 이 숙명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버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사중이 삼형제에게 미리 당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고 미리 방비책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인 삼형제에게는 금기보다 인간의 본능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삼형제는 금기를 하라는 소사중의 말을 잊어버린 채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 과양생이 집으로 들어서게 된다.

과양생이 각시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개가 먹던 바가지에 식은 밥 세 숟가락을 놓아 물말아 내어주니, 부엌문 앞에서 삼형제가 세 숟가락씩 아홉 술을 나누어 먹었더니, 눈이 뜨여 정신이 나면서 산도 넘을 듯 물도 넘을 듯 힘이 남았다.

<중략>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과양생이 각시가 통영칠반에 귀한 약주 저육안주를 차려서,
“이 술 한 잔 드십시오. 한 잔을 먹으면 천년을 살고, 두 잔을 먹으면 만년을 살고, 석잔을 먹으면 구 만년을 삽니다.”

명과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삼형제는 술을 석 잔씩 아홉 잔을 나누어 먹었더니, 공복에 마신 술이라 담뱃 취하여 동쪽으로도 휘청 서쪽으로도 휘청, 삼형제가 머리 간 데 발 가고, 발 간데 머리 가, 동서쪽으로 자빠져 있었구나. 과양생이 각시가 고팡에 달려들어 3년 묵은 참기름을 부어다가 청동화로 숯불에 오송오송 졸여서 왼 귀로부터 오른 귀로 소로록 부어가니, 삼형제가 구름산에 얼음 녹듯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도 못하고 죽습디다.

삼형제가 과양생이 부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찾아간 것이다. 절과 과양생이 집은 삼형제의 삶을 위한 여정이지만 각 집의 상징성은 다르다. 절은 초월계이며 과양생이 집은 세속계다. 이와 같이 상반된 세계에서 삼형제의 성격 또한 양가성을 띤다. 절에서는 정신적 수행을 우선하지만 세속계에서는 육체적인 본능이 우선시된다. 부처는 삼형제에게 삼 년 동안 불공을 드리면 생사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삼형제는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과양생이 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죽음을 맞는다.

삼형제를 죽인 과양생이 처의 악행은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재산을 빼앗아 눈을 멀게 한 노일제테귀일의 딸과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차이점을 지닌다. 공통점은 두 인물 다 상대 인물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꿰뚫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과 늙음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여 그의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시킨다. 과양생이 처 또한 삼형제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본능인 배고픔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고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인물의 기능으로 미루어볼 때 노일제테귀일 처의 악행이 남선비나 여산부인, 녹디생인을 비롯한 일곱 아들들을 신직에 오르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과양생이 처의 악행은 차사본풀이의 주인공인 강림이를 통해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해설적인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삼형

제는 과양생이 처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삼색꽃과 구슬, 과양생이 처의 아들로 환생하나 갑자기 과양생이 처 앞에서 죽음으로써 인간 죽음에 관한 궁극적인 물음을 던진다.

3.2 강림이의 여정

목적의 수행 여부를 두고 볼 때 삼형제의 여정이 실패담인 것과 대조적으로 강림의 여정은 성공담이다. 보편적으로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이 ‘추방담 → 시련담을 통한 능력 실현 및 사물의 기원 → 업무완수와 신으로의 좌절’의 연속적 서사⁹⁾를 거치는데 강림이야기에서는 추방담이 빠져 있다. 그는 애초부터 관원으로서의 임무를 받고 이승과 저승에서 부여받은 차사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저승 세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임무도 함께 한다. 강림이 부여받은 이승에서의 과업은 염라왕을 잡아오는 것이고 저승에서의 과업은 동박사를 잡아오는 것이다. 이승 과업의 부여자는 김치원님이고 저승과업의 부여자는 염라왕이다. 이 두 가지 과업을 성공함에 따라 강림은 인간 차사직을 부여받는다.

김치원님과 염라왕은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기능상 서사에 미치는 역할이 차이가 난다. 염라왕은 김치원님에 비해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위상 또한 높다. 또한 강림이를 부리는 일에 있어서도 저승왕인 염라왕이 강림이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저승차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이승왕인 김치원님은 어리석은 판단력으로 강림이를 저승에 빼앗긴다. 이와 같은 각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위상과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강림이 이승 차사의 임무직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림이가 염라왕을 잡아왔다는 확인도장을 보여주

9)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8쪽.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원님은 강림이를 믿지 못해 옥에 가두는 바람에 뒤 이어 찾아온 염라왕에게 치욕을 당한다.

이승과 저승왕이 강림이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대결도 흥미롭다. 이 대결에 있어서도 이승왕인 김치 원님의 어리석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승왕이 강림이의 육체와 혼정을 두고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을 하자 이승왕은 선뜻 강림이의 육체를 가지겠다고 한다. 그 바람에 이승왕은 강림이의 빈껍데기만 차지하게 되고 혼정을 거두어간 염라왕은 강림이를 데려가 저승차사로서의 임무를 부여한다.

김치원님과 염라왕의 대결을 인간계와 신계의 수직적 이원체제로 보고 신계가 우세하다는 논의¹⁰⁾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본 관점이라 생각한다. 이 두 인물의 대결에서 강림이를 논외로 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강림이는 인세에서는 일개 관원에 불과한 인물이지만 저승에서는 영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입체적 성격이다. 강림이의 성격변화는 같은 인물이 공간에 따라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두 층위에서 보여준 강림이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저승계보다 인간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념은 세속과 연계되어 있는 절과, 분리된 저승의 공간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공간 모두 초월적인 공간이지만 절과 저승은 수직적인 질서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가 인간의 사주팔자까지 고칠 수도 있는 영험한 존재라면, 염라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승차사 강림이에게 매번 수세에 몰려 찢쩍때는 형국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보아 초월계에 대한 인식은 삶을 관장하는 절의 위상이, 죽음을 관장하는 저승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차사본풀이〉인 만큼 강림이의 여정은 이승보다 저승의 과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저승의 이야기가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웅성이 발휘되는 것도 그곳이다. 저승 활약담에서 강림이의 신능

10)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차사본풀이〉 연구 -함흥〈짐가제굿〉 무가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56쪽.

발현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찾는다면 저승에서 염라왕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다. 저승에서의 강림이와 염라왕의 관계에서 강림이의 위세가 우위에 있다면, 이승에서 이 둘 관계는 반전된다. 이와 같이 공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두 인물 간의 관계는 공간에서의 인물들의 성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차사본풀이>의 출발은 죽음을 관장하는 염라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죽음이 왜 생겼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인간이 죽음의 대상이 될 것인지, 원래부터 죽음에는 오늘날과 같이 순서가 없었는지’를 풀어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¹⁾

강림이의 양가성은 이승과 저승에서의 성격의 차이점으로 표출된다. 이승에서의 강림이는 관원의 역할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열여덟 후처의 치마폭에서 방탕을 일삼는 호색한이지만 저승에서는 염라왕을 제압하고 신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의 신능발현 계기는 이승의 원인 김치원님이 과양생이 처의 소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 강림이를 저승으로 보내는 바람에 드러난다. 이승에서의 송사는 김치 원님이 해결할 수 있지만 죽음의 의문은 저승의 일이기 때문에 이승의 인물이 해결할 수 없다.¹²⁾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의 뒤에 숨어있는 여성인물인 원님과 강림이의 부인은 강림이의 신성을 꿰뚫고 있으며 그의 신능발현을 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강림이의 여정의 종착지는 저승이다. 강림이는 행기뭇을 경계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간다. 강림이가 저승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준 제1조력자는 부인이다. 이외에 부인의 간청을 받은 조왕할망과 일문전, 그리고 길나장은 제

11)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 『한국 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54쪽.

12) 제주도에서 김치라고 하면 본토의 김씨, 즉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파악되므로 역사적 인물인 김치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김치는 실존 인물이라는 자료가 있어 흥미롭다. 역사적으로 김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역술에 능하여 인조가 임금이 됨을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적 기록에는 비리관리로 묘사되나 그와 반대로 설화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묘사된다. 또한 김치가 되어 염라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형근, 김현선, 위의 책, 259쪽 참조)

2조력자라 할 수 있다. 제2조력자들의 공통점은 신이면서 어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음식을 먹는데, 특이한 것은 음식을 먹고 반드시 보답을 한다는 것이다. 부처와 달리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들은 음식을 먹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샤만이본풀이〉에서도 주인공인 샤만이 부부가 서른 셋 되는 수명을 늘린 방법이 바로 저승차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대가로 방액을 하여 삼천년을 살았다고 한다. 강림이는 조력자인 신들의 인도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헝기못에 도달하는데 헝기못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계로 제 명에 못 죽어 이승과 저승을 해매는 사람들이 있는 중간계다.

강림이의 저승 통과 의례는 몇 차례에 걸쳐 시련에 부딪히지만 이미 저승의 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부인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통과한다. 부인은 세속에서 강림이의 본처일 뿐이지만 능력면에서는 강림이를 넘어선다. 길을 떠날 사람은 강림이지만 부인은 강림이 겪을 시련과 그 시련을 물리칠 방법까지 알고 있다. 부인의 신통력은 강림이의 저승 행차 시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부인은 강림이를 위한 길 안내지를 파견하는 것부터 저승문을 통과할 적패지의 마련과 이승에서의 증표를 마련한 일까지도 미리 준비해 두어 강림이가 무사히 이승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

강림이는 이승에서 저승 초군문에 들어설 때까지 조력자를 필요로 하지만 염라왕을 만난 후부터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염라왕을 무릎 꿇게 만든다. 이승에서 어리석고 게으른 강림이와 대조적이다.

강림의 한 줌은 하였던 육신은 봉황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거스르고 청동같은 팔뚝을 걸어 동곳같은 팔주먹을 내놓고 우레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한번을 펼척 뛰어 메어치니 삼만 관속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번을 메어치니 육방하인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가마채를 잡아 흔들면서 가마 문을 열어보니 염라왕도 두 주먹을 쥐고 앉아 발발 떨고 있습니다.

강림이가 저승에서 보인 활약상의 호쾌한 장면이다. ‘봉황눈’ ‘삼각수’ ‘청동같은 팔뚝’ ‘동곳같은 팔주먹’ ‘우레같은 소리’ 등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연상케 한다. 강림이의 위용은 염라왕을 굴복시킨 데 이어 강림을 무시하던 심방까지 결박하여 또 한 번의 영웅성을 발휘한다. 결국 심방이 모신 신이 강림의 위압에 무릎 꿇게 되자 강림이가 들뜬 기분에 술을 마시는 바람에 염라왕이 도망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조왕할망의 도움으로 새로 변한 염라왕을 잡아서 염라왕을 이승으로 잡아오는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강림이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의 여정은 저승으로 갈 때와 달리 염라왕의 지배권을 벗어날 수 없다. 강림이는 염라왕의 도움으로 이승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승에 올 때의 여정 또한 행기뭇을 거쳐 집으로 돌아온다.

강림이가 김치원님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원님은 강림을 믿지 못하고 옥에 가둔다. 그러나 뒤이어 이승으로 온 염라왕이 강림이를 구하고 이승에서의 소지를 해결해 줌에 따라 강림이의 과업은 끝이 난다. 그 과업을 수행한 대가로 강림은 염라왕의 인정을 받아 저승차사로 부임한다. 저승차사로서의 첫 과업은 삼천년 동안이나 저승으로 잡아들이지 못한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명령이다. 강림이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또 다시 길을 떠나 마침내 신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4. 문답의 해설적 기능

4.1 눈을 뜬 세계

눈을 뜬 세계는 이승 세계다. 이승에서 두 삽화의 중심인물인 삼형제나 강림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알 수 있지만 저승의 일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이승에서 삼형제는 부모를 떠나 절로 가고 과양생이 부부를 만나고 밥과 술을 얻어먹는 일을 겪는다. 그러다 죽어 주천강 언덕에 버려져 염라왕이 와서 죽은 그들을 살려줄 때까지의 일은 알 수가 없다. 강림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승 세계를 다녀 온 그지만 이승에서의 강림이는

게으른 호색한일 뿐 저승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 두 인물들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는 ‘생사람이 눈을 뜨듯이’ 돌아온다. 이승에서 눈을 감은 것과 같이 저승 세계를 다녀왔다는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을 모두 겪은 사람이다. 눈을 뜬 세계에서 삼형제나 강림이는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눈을 감은 세계에서는 저승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가진다.

눈을 뜬 세계에서의 첫 번째 물음은 삼형제와 부처의 관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형제〉

- ① 옛날 옛적 동경국에 재물이 많은 버무왕이 있었는데 아들 일곱 형제를 낳다
- ② 일곱 형제 중 위의 사형제는 사주팔자가 좋고, 아래 삼형제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정명이 15세이다
- ③ 동관음사 은중전 대사중이 죽기 전에 소사중에게 삼형제의 명을 늘여주라고 유언하다
- ④ 소사중이 유언을 받들어 동경국에 가서 삼형제의 정명이 15세임을 알려주다
- ⑤ 삼형제의 부모가 삼형제를 절로 보내기로 결심하다
- ⑥ 삼형제는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동관을 상주사로 올라오다.
- ⑦ 부처님께 불공드린 지 3년째가 되는 날 부모형제 생각이 간절하게 나다
- ⑧ 대사중에게 고하니 광양땅을 지날 때 조심하라는 금기의 말을 하다.
- ⑨ 삼형제는 광양땅을 지날 때 너무 배가 고파 대사의 말을 잊어버리고 과양생이 집을 찾아가다
- ⑩ 삼형제는 재물을 노린 과양생이 처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환생을 하다

위의 내용은 중심 모티프에 따라 ①~④/ ⑤~⑥/ ⑦~⑩으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인간의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다. 위로 사형제는 사주팔자가 좋고, 아래 삼형제는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한다. 두 번째 단락은 사주팔자를 고칠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처와 같은 초월자에게 불공을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인간의 사주팔자의 변화 여부에 대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물음을 묶으면 결국 ‘인간의 운명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두 번째 물음은 과양생이 처에 의해 제기된다. 이 물음은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한 의문이다. 과양생이 처를 통해 제기되는 물음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양생이 처〉

- ① 삼형제가 배가 고파 과양생이 집에 들러 밥을 달라고 하자 욕을 하며 개가 먹던 바가지에 밥을 준다.
- ② 삼형제가 과양생이 처에게 음식을 먹은 사례를 하자 과양생이 처는 재산을 노려 삼형제를 죽인다.
- ③ 과양생이 처는 삼형제를 죽여 재물을 빼앗고 시체를 주천강 연화못에 수증영장시키다
- ④ 삼형제가 죽은 지 7일이 지나자 주천강 연화못에 삼색꽃이 떠 있어 꽃을 꺾어 집에 걸어두니 꽃이 방해를 하니 청동화로에 태워버리다.
- ⑤ 청태국 마구할망이 불을 빌리러 와 청동화로 속의 삼색구슬을 발견하자 과양생이 처가 자신의 것이라 빼앗다.
- ⑥ 과양생이 처가 삼색구슬을 입에 넣고 굴리다 잘못하는 바람에 삼키니 그 길로 태기가 있어 삼형제를 출산하다.
- ⑦ 삼형제가 일곱 살 되던 해 삼천서당에 보내니 영민하여 15세에 과거시험에 합격하다
- ⑧ 과양생이 처는 삼형제가 과거시험에 합격해 고을로 돌아오자 삼형제인 줄 모르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다
- ⑨ 삼형제가 집으로 들어와 과양생이 부부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죽다
- ⑩ 과양생이 처는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원님에게 소지하러 가다.

위의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①~③은 과양생이 처의 악행담이며 ④~⑦은 삼형제의 환생담 ⑧~⑩은 악행에 대한 결과담이다. 과양생이 처는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삼형제가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물음은 동박삭과 강림이를 통해 제시된다. 염라왕은 강림이를 인세에 보내어 강림이의 저승차사로서의 능력을 시험하기에 이른다. 그 시험 대상이 바로 동박삭이다. 동박삭은 강림이 이전의 저승차사들이 직무 능력 부족으로 인세에서 유일하게 저승으로 데리고 오지 못한 인물이다. 염라왕은 강림이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험을 부여한다. 강림이와 동박삭의 관계를 통해 제시된 물음은 ‘인간 생명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다.

- ① 염라왕은 강림이에게 이전의 차사들이 잡지 못한 동박삭을 잡아오면 한 달의 휴가를 주겠다고 하다.
- ② 강림이 이 분부를 받들어 동박삭을 잡으러 길을 떠나서 동박삭에게 검은 솥을 씻는 것으로 유인하다
- ③ 지나가던 동박삭이 그 모양을 보고 ‘왜 솥을 씻느냐’고 묻다
- ④ 강림이가 ‘검은 솥을 백일만 씻으면 하얀 솥이 된다’고 대답하다
- ⑤ 동박삭이 그 말을 듣고 ‘내가 3천년을 살아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다
- ⑥ 강림이가 마침내 동박삭을 잡다

①은 강림이가 저승의 왕에게 저승차사로서 부여받은 첫 임무다. ②~⑥은 강림이 지혜로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는 내용이다. 저승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염라왕이나 강림, 강림과 동박삭과의 관계가 지극히 인간적이며 유쾌하기까지 하다. 사람 목숨을 거두어가는 저승왕과 저승차사의 타협내용은 바로 휴가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강림이가 동박삭을 가려내는 방법 또한 지극히 평범하기조차 하다.

4.2 눈을 감은 세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한다. 〈차사본풀

이)는 이러한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본풀이는 차사가 된 강림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예사 사람인 삼형제, 과양생이 처, 동박삭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 삶에 관한 궁극적인 물음을 던진다. 이 중에서도 <차사본풀이>는 인간 삶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에 관한 물음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저승차사인 강림이와 염라왕을 통해 풀어준다.

이 물음에 대한 해설적 기능은 이승과 저승의 문답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승이며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저승이다. 인간은 이승에서 태어나 일정기간 수명을 이어가다 저승으로 간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저승이라면 저승은 인간의 지각 너머에 있는 저편의 세계이다. 그 세계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므로 상상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없는 세계를 있는 세계로 바꾸어 놓는다. 사람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초자연의 상상세계를 그려내게 되고 그 그려낸 초자연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로 바꾸어 놓는다.¹³⁾ 인간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뜬다. 이와 같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일생을 마친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의 근원론적 의문을 해소할 방법을 일상의 경험 속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삼화 1>과 <삼화 2>의 주인공인 삼형제나 강림이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의 과정을 보면 마치 꿈을 꾸듯이 일어난다고 한다.

- ① 염라왕이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을 세 번 때리니 주천강 연못이 바싹 짚아져 마른 먼지가 나온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는 뼈만 살그랑이 남아 있으니 차례차례 모아놓고, 염라왕이 금부채로 세 번을 때리니, 삼형제가,
“아이고, 봄 잠이라 늦게 잤습니다.”

벌떡 일어나니, 과양생이 부부를 불러다가.(후략)

- ② 저드랑이 품에 떡을 끊으면서 강아지를 달래며 뒤따라 가다보니 행기못에

13) 김수업, 「우리신화의 상상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백의, 1999, 40쪽.

가까이 온다. 백강아지가 달려들어 강림의 목 앞 부분을 물고 행기뿔으로 풍덩 빠지니, 생사람이 잠자다가 꿈을 깨듯이 강림이 눈을 번뜩 떠보니 이승 길이 뵈디다.

①은 삼형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고 ②는 강림이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인물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당사자들은 ‘마치 감았던 눈을 뜨는 것’같이 느끼는 점이 공통점이다. 저승 하루가 이승 1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승보다 저승에서의 삶이 더 순식간에 지나가고 가벼운 일상임을 내비치고 있다. 저승 다녀오는 일도 이승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가볍게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첫 번째 물음인 ‘인간의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생(生)은 부처가 주관하고 사(死)는 염라왕이 주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生)과 사(死)도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 방법은 생(生)은 부처가 주관하지만 부처와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 연장될 수 있으며 사(死)는 염라왕의 소관이되 저승차사의 전령인 까마귀의 실수로 남녀노소 죽음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물음은 예사사람인 삼형제를 내세워 사주팔자에 대한 운명관을 제시하고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의 몫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부처는 후대에 불교적인 운색이 더한 결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대표적 문헌신화인 단군신화를 보면 최초의 건국주인 단군은 하늘신인 환웅과 땅신인 웅녀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다.¹⁴⁾ 무속신화는 건국신화

14) 한국인의 신화와 의례의 핵심은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된다는 데에 있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인간이 승화의 과정을 밟는 것은 하늘과 땅, 곧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고대인들은 그 교제의 기법을 음주가무에서 터득하여 신인합일의 경지를 체험했다. 이 신화에서는 부처가 인간의 사주팔자에 관여하고 인간인 삼형제가 부처를 찾아 떠난 것은 이런 사상의 반영이라 생각한다.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1997, 59쪽)

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된 구전자료로서 무당에 의해 전승되다가 최근 20세기 들어와서야 글로 정착된 자료다.¹⁵⁾ 옥황은 도교의 가장 높은 신이지만 한국 무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하늘신, 하느님과 동일시된다.¹⁶⁾ 그는 인간에게 수명장수를 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신으로 믿어진다. 부처도 한국巫에서는 불사(佛師)라는 칭호로 불려지며 하늘신으로 모셔진다.¹⁷⁾ 이수자 또한 제주도 큰 굿 속의 일반본풀이들이 불교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에 관해, 불교형성 이전에 생긴 우리 고유의 신앙체계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편 바가 있다.¹⁸⁾

부처가 인간의 생명과 사주팔자에 관여하는 대신에 염라왕은 죽음을 관장한다. 염라왕이 ‘인간사람 여자는 70, 남자는 80이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와라’라는 적패지를 붙여두고 오라는 법을 만들어 강림이에게 분부를 내리니 강림이가 오는 도중에 피곤하여 그 임무를 까마귀에게 맡기는 바람에 까마귀가 적패지를 잃어버려 인간의 죽음 순서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순서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¹⁹⁾ 이것은 죽음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15) 권복순, 『건국신화의 하늘과 땅』, 경상대 석사논문, 2000. 참조.

16) 평남 은산군에 있는 형성 연대가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천왕지신총의 <천왕도>를 보면, 주작을 타고 있는 선인을 천왕(天王)이라 밝혀 적고 있다. (안동준, 『한국도교문화탐구』, 지식산업사, 2008, 90쪽)

17) 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1, 95-96쪽.

18) 불도라 할 때의 불은 붓대를 의미하는 佛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를 제의 속의 언어에서 찾고 있다. 산신을 생불할망이라 하고 이 신을 맞이하여 행하는 재차를 불도맞이 재차라 하는데, 産神은 [생불할망이라 하고 이 신을 맞는 재차는 [불도맞이], 아이를 잉태시키는 꽃은 [생불꽃], 아이의 잉태를 기원하는 제의를 [월불수륙]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제의는 [시방광서불]이라 하는 등 인간생명과 관련된 것은 [불]로 사용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신체를 지칭한 말 중에 남성 성기 중의 고환은 [불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생명의 알’을 뜻한다고 하였다.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신화』, 이수자, 『논평 : 濟州道 巫俗과 神話』, 제주도 연구회, 1989, 20-24쪽.)

19)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잡식한다’해서 제상에 올렸던 각종제물을 조금씩 끊어서 지붕위에 올린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까마귀들이 아는지 그 지붕위에 와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다. 그러면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의 순서에 관한 해설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 물음은 죽음 이후와 관련된 문제로서 과양생이 처와 염라왕의 문답으로 구체화된다. 이 문제는 〈차사본풀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으로 강림이의 이승 과업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과양생이 부부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에 온 염라왕의 대면으로 해결된다.

염라왕이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을 세 번 때리니 주천강 연못이 바싹 잿아져 마른 먼지가 나옵니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는 뼈만 살그람이 남아 있으니 차례차례 모아놓고, 염라왕이 금부채로 세 번을 때리니, 삼형제가,

“아이고, 봄 잠이라 늦게 잤습니다.”

벌떡 일어나니, 과양생이 부부간을 불러다가,

“이것이 너의 아들 삼형제냐?”

“예, 우리 아들 삼형제와 꼭 같습니다.”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활 받아라, 갈 받아라, 죽일 판으로 덤벼들어 가니, 염라왕이 말을 하되,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아버지 어머니를 어서 찾아가거라.”

과양생이 부부는 팔 다리 아홉에 소를 묶어 목자를 시켜 동서로 몰아가라 하니, 과양생이 부부간이 아홉 조각으로 찢어진다. 찢어지다 남은 것은 방아에 넣어 독독 뿜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살아있던 때도 나의 피만 빨아먹자고 하던 과양생이 부부간은 죽어도 남의 피를 빨아먹자고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합니다.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부의 소지를 풀어주기 위해 직접 삼형제의 죽은 이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염라왕이 그 세계를 보여줌으로 인해 과양생이 부부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임을 알게 된다. 과양생이 부부는 현세에서 벌써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이한다. 즉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극단의 기쁨과 슬픔을 겪은 것인데, 그것은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다. 염라왕은 금부채를 이용하여 삼형제의 죽은 실상을 보여줌에

고 하는데 영혼이 와서 제사를 잘 받고 갔다는 사고이다. 까마귀는 차사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나온 사고인 것 같다.(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91쪽)

따라 과양생이 부부의 악행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그 악행으로 인해 과양생이 부부는 각다귀나 모기로 환생한다. 삼형제가 꽃과 구슬에 이어 사람으로 환생한 것과 대조적이다.²⁰⁾ 이러한 惡因惡果, 善人善果의 사상은 인간의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는 관점의 반영이다. 사자는 죽었지만 살았을 때처럼 희노애락도 있고 도덕 윤리상 인과응보도 있다는 연장 응보관을 보여준 것이다.²¹⁾

우리의 죽음기원신화에서 저승관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논의²²⁾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사본풀이>에서 주천강연못은 바로 인간의 재생과 환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삼형제는 죽어 꽃이나 구슬로 환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염라왕에 의해 인간으로 환생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저승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간은 영·육이 분리된다는 사고관이 엿보인다. 삼형제나 강림이는 살았을 적에는 영육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죽음을 전후로 영·육이 분리되는 존재로 변화한다. 삼형제는 죽어 빼만 남은 상태에 이르렀으나 혼이 빼에 깃들어서 다시 부활한다. 이승과 저승왕의 강림이차지하기 대결에서 이승 원님은 육신을, 저승왕은 영혼을 선택한다. 이에 강림의 영혼이 저승왕을 따라가자 이승의 육신은 허물어진다.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저승에서 다른 유형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저승은 혼들의 세상인데,

20) 내세에는 극락과 지옥의 이중형태(二種形態)가 있고 망인의 영혼은 일단 죽어서 명부(冥府)로 가 십대왕(十大王) 앞을 차례로 거처가며 현세에서 생전의 선악심판을 맡아 지선자(至善者)는 극락으로 보내어 왕생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악선자는 지옥으로 보내어 온갖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95, 309쪽)

21) 최래옥, 「民俗 信仰의 측면에서 본 韓國人의 죽음관」,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76-78쪽.

22)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 『한국 민속학』, 43집, 2006, 63쪽.

삼형제나 과양생이 부부와 같이 환생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중간계인 행기뫼에서 떠도는 혼, 그리고 동박삭과 같이 저승에 안착하는 유형이 있다. 이러한 다층적 저승관은 우리 민족의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동방삭을 통해 제시된 인간의 영생의 의문에 대한 해설은 강림이 삼천년이나 수명을 누린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감으로써 답을 마련한다. 즉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예사사람인 삼형제나 과양생이 부부는 죽음의 통과의례를 거쳐 새로운 존재로 환생한 것이지 영생한 존재들은 아니다.

5. 마무리

이 글은 〈차사본풀이〉의 구조가 독립된 두 삽화가 이어져 전체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독특한 서사원리가 이야기의 전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시작하였다. 기대하는 연구 성과에 이르기 위해 먼저 삽화별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이자 통합된 이야기인 〈차사본풀이〉에서 각 삽화별 주인공은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와 강림이다. 이 두 삽화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공간은 두 층위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매개공간이 있어 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각 주인공들의 여정은 삶과 죽음의 공간을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삼형제의 여정은 단선적이라면 강림의 여정은 보다 복잡성을 띤다.

각 주인공들이 떠난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삼형제의 여정은 실패담인 반면 강림의 여정은 성공담이다. 삼형제는 이미 정해진 사주팔자를 고치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된다. 반면 강림이는 이승 차사로서의 임무를 띠고 저승으로 가서 염라왕을 잡아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인물 목적상의 차이점은 인물의 본질성과 서사적 기능이 다름에 기인한다. 삼형제의 죽음은 강림이를 이끌어오기 위한 예비담의 성격을 띤다.

각 삽화별 주인공이 다른 독특한 서사원리는 〈차사본풀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줄 문학적 장치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삼형제를 내세운 예비담의 물음에 대해 본격담에서는 강림이를 매개로 해답을 마련한다. 물음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 삼형제를 통해 제시된 물음은 '인간의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사주팔자는 초월자의 권역이며 생(生)은 부처가 주관하고 사(死)는 염라왕이 주관자'라고 말한다. 더불어 죽음의 순서가 나이와 상관없이 뒤바뀐 내력도 설명한다. 그리고 생(生)과 사(死)도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두 번째 과양생이 처에 의해 제기된 물음은 '인간의 사후에 관한 의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강림이에 의해 이승에 온 염라왕이 해명해 준다. 과양생이 부부는 그들의 의문을 염라왕을 통해 해소하고 악행의 결과 죽어서 각다귀나 모기로 환생한다. 반면 삼형제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러한 관념은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惡因惡果, 善人善果의 사상을 반영한다.

세 번째 강림이와 동박삭을 통해 제시된 물음은 '인간 생명의 영원성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강림이가 삼천년이나 산 동박삭을 저승으로 잡아옴으로써 일단락된다. 즉 인간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밖에 영·육이 분리된 사고관도 발견된다. 이승에 있을 때의 삼형제나 강림이는 영·육 일체였으나 저승에서는 영·육이 분리된다.

이상과 같이 〈차사본풀이〉의 독특한 서사원리를 통해 전하고자 한 바는 삼형제의 죽음을 통해 강림이를 등장시켜 저승세계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 권복순, 『건국신화의 하늘과 땅』, 경상대 석사논문, 2000. 1쪽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 『한국 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43-71쪽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溯上古典研究』제29집, 2009, 328-362쪽
- 김수업, 「우리신화의 상상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백의, 1999
-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95, 309쪽
-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차사본풀이〉 연구 -함흥〈짐가제굿〉 무가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1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39-271쪽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8-263쪽
- 안동준, 『한국도교문화탐구』, 지식산업사, 2008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1997
-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신화」, 이수자, 「논평 : 濟州道 巫俗과 神話」, 제주도 연구회, 1989, 20-24쪽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79
- 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1
- 최래옥, 「民俗 信仰의 측면에서 본 韓國人의 죽음관」, 『비교민속학』17집, 비교민속학회, 1999, 55-87쪽
-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29집, 1997, 223-246쪽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

The explanatory function and meaning of 〈Chasabonpuli〉

Kwon, Bok-soon(Gy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earches the influences which affect the delivery effect of story by this special narration principle, noticing that the full story consists of the structure of 〈Chasabonpuli〉 which has two independent artworks.

The main characters of each artwork in 〈Chasabonpuli〉 are three sons of Beomu King and Gangrim. The space of main characters of two artworks is separated as two layers and connected continuously.

The common point is that the itinerary of each main character goes through the space of life and death. And the itinerary of three sons is unilinear. On the other hand, that of Gangrim is overlapping.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tinerary which each main character left on a journey, the itinerary of three sons is a failure story and that of Gangrim is a success story.

Three brothers set off along the road to change the fixed destiny, but they don't attain their purpose. On the other hand, Gangrim completes Chasa-duty of this world and the world after death. So, he receives Ingan Chasa status. Success or failure of this purpose results from the difference of essentials and narrative function of each character of artworks. The itinerary of three brothers ends in death as a failure story. And that illustrates the character of preliminary story for Gangrim to receive Chasa status.

The answer of question which raises through life and death of three brothers comes out in regular story of which Gangrim is the medium. The questions are summarized as three pieces.

First, it is what the destiny of human being is. The answer to the destiny view is that the domain is the area of transcendentia. It suggests that Life is the area of Buddha, and death is that of the King of Hades. Then, it refers the fluidity of life and death.

Secondly, it is that the question which Kuayangsrangi's wife poses is about post obitum of human be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e King of Hades explains directly in this world. So, Kuayangsrangi couple is reincarnated as worms by the retribution for a bad deed. On the other hand, three brothers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are reincarnated as human beings. This idea reflects that death is the extension of life, and the philosophy of punitive justice.

Thirdly, it is presented through Gangrimi and Dongbangsag, and it is about the eternity of human lif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human being is not immortal being by arresting Dongbangsag by Gangrimi. Additionally, the separation concept of body and soul is also found. When three brothers and Gangrimi are in this world, body and soul exist together. But when they go to the world after death, body and soul are separated.

As mentioned above, the special narration principle of 〈Chasabonpuli〉 is to suggest effectively the explanatory function of Question and Answer through the structure of a preliminary story and a regular story.

Key words : special narration principle, life and death, preliminary story, regular story, question, answer, explanatory function

이 름 : 권복순
근 무 처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 소 : [660-300] 경남 진주시 가좌동 773번지 연암아파트 101호
전 화 : 055) 759-8854, 019-587-8854
전자 우편 : grara@dreamwiz.com

논문 접수 : 2011년 11월 2일
심사 완료 : 2011년 12월 5일
계재 확정 : 2011년 12월 7일